



예능 더유닛 출신 걸그룹 유니티(UNI.T)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별 앞둔 유니티 “끝 아닌 시작”

미니 2집 ‘끝을 아는 시작’으로 활동 종료 각자 자기 자리로...“함께 한 청춘 잊지 못해”

언젠가 끝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었다. 시간의 쓴살갭이 지나갔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그들, 한뼘 성장한 유니티(UNI.T) 이야기다.

유니티는 지난해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유닛’으로 결성됐다.

올해 5월 첫 번째 미니앨범 ‘라인’(LINE)으로 재데뷔한 이들은 오는 18일 두 번째 미니앨범 ‘끝을 아는 시작’으로 유니티라는 이름표를 내려놓는다. 프로젝트 그룹의 숙명이지만 헤어짐이 익숙할 리 없다.

최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취재진과 만난 유니티는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소회를 전했다. 가장 많이 한 말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였다.

우희는 “솔직히 아쉽고 서운하다. 예전에는 ‘다음 활동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다양한 모습으로 새 앨범을 준비하겠다’가 정답이었는데 이젠 그럴 수 없으니까...”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수지도 “아무래도 제가 배우 기획사에 있다 보니 앞으로 무대에 설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서글프게 웃어 보였다.

행복한 추억도 많았다.

‘더유닛’ 1위로 뽑힌 의진은 “지난 앨범 타이틀곡 ‘너머’로 활동하며 처음 해본 일이 많다. 미니 팬미팅, 홍대 게릴라 팬미팅을 통해 즉석에서 팬들과 친근하게 만난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윤조는 “‘너머’의 마지막 팬사인회 때 팬들이 이벤트를 해주셨다. 평소 눈물이 없는 편인데 참 많이 울었다. 팬들이 불러주는 노래에서 진심이 와 닿았다”고 털어놨다. 에이프릴을 탈퇴한 이현주는 “저는 늘 ‘내가 가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데뷔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쉬운 점이 없었냐는 질문에 앤씨는 “유엔비는 멤버들이 작사·작곡을 했는데, 유니티는 그러지 못했던 게 아쉽다”며 “나머지는 완벽했다”고 생각 웃었다.

새 앨범 준비과정은 감정 기복의 연속이었다. 어쩌면 가수로서 마지막 앨범일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습실로 돌아가길 여러 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윤조는 “숙소에서 멤버들과 맥주 한 캔씩 할 때가 있었다. 끝을 앞두고 보니 고민을 나누기도 했고, 늘 같은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은 유명 작곡가 용감한형제가 만든 댄스곡 ‘난 말야’. 지연은 본래 그룹 라붐 활동 때문에 참여하지 못해 8명만 함께했다.

의진은 “안무 중에 비장의 카드가 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으면 행복하게 끝낼 수 있을 듯하다”며 “처음 그 안무를 봤을 땐 충격적이었는데, 불수록 괜찮더라”고 귀띔했다. 양지~원도 “매니저 오빠가 노래가 안 뜨면 이 업계에서 은퇴한다고 하셨다. 그만큼 확신이 있는 노래니 많이 기대해달라”고 농반진반 말했다.

이제 멤버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의진은 소나무, 예빈은 다이나, 지연은 라붐으로 복귀하며 앤씨는 솔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지와 현주는 연기자로, 양지원은 뮤지컬 배우로 전향을 고민 중이다. 우희, 윤조도 새길을 타진 중이다.

유니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다시 모이고 싶다고 했다.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멤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유니티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선물이었어요. 각자 다른 팀이었던 우리가 모여서 청춘을 함께했다는 걸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의 헤어짐이 앨범명처럼 ‘끝을 아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닌 시작’이길 바라요.”

/연합뉴스

기사제보 227-0000

슈퍼주니어, 미니앨범...“라틴 팝 한번 더”

‘원 모어 타임’ 다음달 8일 발표

그룹 슈퍼주니어가 10월 8일 스페셜 미니앨범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을 발표한다.

17일 레이블SJ에 따르면 슈퍼주니어는 이번 앨범에 수록된 다섯 트랙 중 선공개 곡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이달 공개한다.

‘원 모어 타임’은 멤버 려욱이 제대 후 처음 합류한 앨범으로 ‘슈퍼주니어 표’ 라틴 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정규 8집 리패키지 앨

범 타이틀곡으로 발표한 라틴 팝 ‘로시엔토’(Lo Siento)에 이어 색다른 라틴 콘셉트.

곡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당시 ‘로시엔토’는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라틴 디지털송 차트 13위에 진입하는 인기를 얻었다.

앞서 슈퍼주니어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인스타그램 NO1 사주솔루션 더.사주 THE 사주

9월 18일 (음력 8월 9일) www.instagram.com/the.saju KAKAOTALK : themaj

속 시원한 사주풀이 더.사주가 책임집니다!

 子	60년생: 심신이 피로하지 않게 건강관리를 하라. 72년생: 주변인이 애를 먹여도 나약해지지말자. 84년생: 세상이 항상 좋은 수만은 없는 법이다. 96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다.	 午	66년생: 열심히 뛰면 그나마 조금은 얻겠다. 78년생: 새로운 일을 벌이면 불리하고 고생한다. 90년생: 암만 강직해도 일에는 융통성을 보이자. 02년생: 재수가 좋아지니 욕심이 커지는 날이다.
 丑	61년생: 욕심을 줄이면 세상이 보이는 법이다. 73년생: 집안 일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지마라. 85년생: 오늘은 명예보다 실속을 찾아보자. 97년생: 정신을 잘 차리고 몸가짐을 조심하자.	 未	67년생: 여성부영 지체해 때를 놓치지 십상이다. 79년생: 친구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날이다. 91년생: 자기감정을 억제하기 쉽지 않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寅	62년생: 잊고 버려둔 것에서 행운이 있겠다. 74년생: 필요할 때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86년생: 가벼운 마음으로 한결음부터 시작하자. 98년생: 초반의 어려움이 후반에 풀릴 것이다.	 申	68년생: 재수는 보통이지만 신성 결 일이다. 근심부터 해소시켜야 다른 일도 한다. 80년생: 어느날보다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92년생: 웃은 일에도 나서서 도우면 길하겠다.
 卯	63년생: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몸조심하자. 75년생: 상하가 화목하니 모든 일이 순조롭다. 87년생: 재물운이 좋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99년생: 마음 속 열정만 살리면 승산이 있다.	 酉	69년생: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이 좋다. 81년생: 좋은 일로 마신 술이 실수를 부를 수가 있다. 음주량을 특히나 잘 조절하자. 93년생: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롭겠다.
 辰	64년생: 오랜 친구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76년생: 남모르게 흘린 눈물이 복이 될 것이다. 88년생: 미진했던 일이 마무리가 되어 즐겁다. 00년생: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정을 숨겨보라.	 戌	70년생: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2년생: 사소한 일에 괜한 고집을 피우지마라. 94년생: 오늘 운명이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긍정적인 생각이 실마리를 풀어주겠다.
 巳	65년생: 강한 주장은 손해만 불러일으키겠다. 77년생: 오늘은 과묵한 가운데에 길함이 있다. 89년생: 주변을 정리하는 날로 보내면 좋겠다. 01년생: 기분 전환을 위해 색다른 장소도 가자.	 亥	59년생: 고여있던 물도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 71년생: 분주한만큼 재물로 이어지니 기쁘다. 83년생: 한 눈 팔지 말고 한가지에만 집중하라. 95년생: 원하는 일에 결실이 없으니 답답하겠다.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